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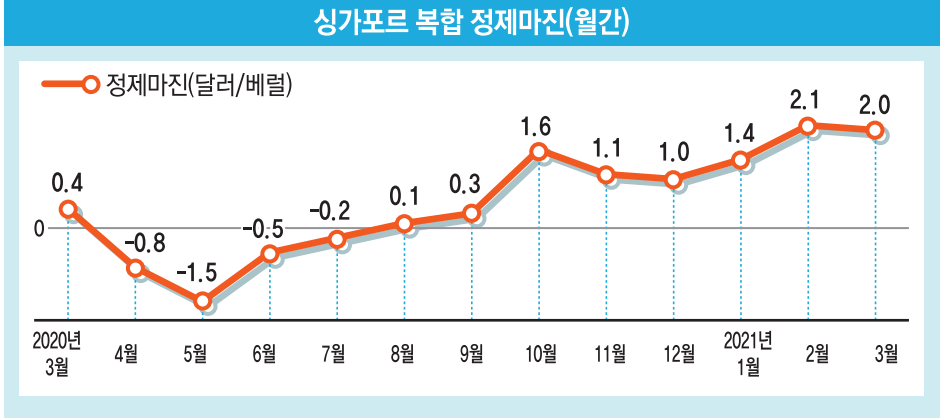
정제마진 2달러대 상승...1분기 흑자전환 전망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한파로 인해 공급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정제마진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실적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총격으로 5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1.5달러까지 하락 美텍사스 한파로 국제 유가 상승 꾸준히 수익성 이어질지는 미지수 국내 정유사 “항공유 수요가 관건”

●유가상승, 정제마진 회복...호실적 기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은 2월 8일 기준 배럴당 59.80달러에서 3월 8일 기준 68.32달러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4일 사실상 감산조치를 이어간다고 발표한 것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회복도 정유사의 실적 개선을 돕고 있다. 정유 업체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생산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이 상승하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딴 정유사들이 흑자전환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사진제공 | SK이노베이션

되는 휘발유, 항공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석유 제품 판매 수익에서 원유 수입비용과 설비 운영비, 운반비 등을 차감해 남은 수익이 정제마진이다. 때문에 정제마진이 오르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정제마진(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기

준)은 지난해 2월 기준 0.4달러까지 떨어지며 정유사의 적자 규모를 키웠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밑돌면 정유사들은 제품을 판매할수록 손해를 본다. 다행히 정제마진은 2020년 연말부터 1달러 대를 회복했고, 올해 3월에는 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적개선이 지속될지는 미지수

그렇다면 정제마진의 손익 분기는 얼마일까. 흔히 정제마진 손익 분기가 4달러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기준일 뿐이다. 각 정유사의 실제 정제마진 손익분기는 업체마다 다르며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대외비”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의 1분기 실적 개선은 정제마진이 회복된 면도 있지만, 텍사스 한파로 인한 생산 차질로 휘발유 정제마진이 좋아진 것이 업황 회복을 도왔다”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1~2월 쉐 가격에 매입한 유종의 재고평가이익이 올라간 것도 1분기 흑자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제품의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비행기가 자유롭게 뜨느냐다. 국내 정유업계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다. 이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행기가 뜬다는 것은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석유연료 수요는 거의 대부분 이동수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마존 자율 주행차 로보택시에 효성첨단소재, 차세대 에어백 공급

효성첨단소재의 에어백 제조회사인 ‘GST글로벌’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ZF(ZF Friedrichshafen AG)’를 통해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로 로보택시에 장착될 차세대 OPW 에어백(New Generation Airbag)을 2022년부터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마존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는 다양한 사용목적에 따라 실내 공간 구성이 달라지는 목적 기반 차량(PBV : Purpose Built Vehicle)이다. 완전 자율주행 PBV에 에어백을 납품하는 것은 효성첨단소재가 최초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GST의 우수한 제품 개발력과 OPW 에어백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뉴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 더욱 다양해질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SK ‘배터리 소송’ 2차전...이번주 특허침해 ITC 예비결정

예비결정 90% 최종결과로 이어져 LG 승소 시 배터리 분쟁 승기 굳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판단이 빠르면 이번 주말 나올 예정이다.

ITC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특허 침해 사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첫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LG(왼쪽)와 SK 본사.

서는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최종결정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월 승소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측의 분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대통령이 효력 발생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월 11일이다. 업계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비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7일(수) 음력: 2월 5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우왕좌왕하기 쉽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를 넓혀주는 운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관세수를 조심하라.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은 잘 보살펴라. 이성문제도 조심하라.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병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원숭이띠를 만나 자문을 구해라.		주변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원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문학이나 예술 분야서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대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종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기발한 대책으로 실리 달성하는 날이다.		이일 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15

한국조선해양, 선박 10척 8230억 수주

유럽 선사 등과 VLCC 4척·LPG선 4척·PC선 2척 계약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8230억 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 4개 해의 소재 선사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 9만1000입방미터(m³)급 초대형 LPG운반선 3척, 4만 입방미터급 중형 LPG운반선 1척, 5만 톤급 P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대형 LPG운반선과 중형 LPG운반선 계약에는 옵션도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초대형 원유운반선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탑재해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대응이 가능하다. 초대형·중형 LPG선에는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탑재했다.

한편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LPG운반선은 각각 23척씩 발주됐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초대형 원유운반선 9척(전체 발주량 40%)과 LPG 운반선 15척(전체 발주량 65%)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LPG와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현대오일뱅크, 미국에 휘발유 완제품 첫 수출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가 2분기 미국으로 휘발유 완제품 수출을 추진한다. 현대오일뱅크가 북미 지역에 휘발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휘발유 수입에 나선 이유는 최근 텍사스 주에 불어 닥친 기록적인 한파 때문이다. 엑스모빌, 쉼브론 등 다수의 정유공장이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며 석유제품 재고가 급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익성이 개선된 미국 휘발유 시장 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회사 관계자는 “30만 배럴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제마진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17일(수)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 16		2 12		-1 18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5 14		0 17		1 17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 19		1 18		5 16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간수 화를 (오전/오후)
	4 17		5 14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3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